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국술인물사 /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민중불교 이론 확립

# 발표문 찢은 것은 경찰조사 때문

대사회운동에 대한 논의는 기획부장인 최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는 1975년 전재성 회장 당시 기획부장을 맡을 때부터 대불련 산하 연구조사국을 적극 지원했다.

대불련 본부에서 민중들의 의식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만들어 각 지부에 배포했다. 각 도별 지부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벌였다. 대불련 전국에서 조사한 앙케이트 자료를 가지고 서울 조계사에서 세미나를 하고자 했다. 이것이 '청년제'였다. 대회를 큰 규모로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고 만다.

1975년도에 기획부장을 했던 최연이 1976년 대불련 회장이 됐다. 또 연구조사국장인 이현주는 대의원의 의장으로 지명됐다. 전재성 회장 때의 논의들을 그대로 이어갔다. 민중불교운동을 위해 민중들의 삶을 피상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었다. 의식조사 대상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빈민들이었다.

최연 대불련 회장은 민중불교를 확산시키는 이론을 정립시키기 위해 1976년 여름

수련회를 기획했다. 장소는 전북 완주에 위치한 송광사 옆 소양캠프장이다. 수개월 동안 활발하게 민중불교를 놓고 토론했던 김유철 등 5명이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 졸업생 전보삼이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대불련 회원과 간부 그리고 지도 교수들이 운집했다.

"여름 화랑대회 전국대회 때 이론을 발표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5-6명이 모여 민중불교를 실현하는 전진대회를 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전보삼 씨는 당시 졸업생으로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5-6명이 모여 미리 주제를 정하고 세미나들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3-8월 진행했는데 화랑대회까지 5-6번 모였을 겁니다."

"그 당시 행사에서 민중불교운동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고, 다음에 그에 대한 전진대회를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자 중에는 前 회장이었던 전재성도 포함됐다. 1976년 당시 민중불교 이론의 발표는 매우 급진적이었다. 행사 내용이 경찰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 지도교수들은 학생들을 꾸짖었다. 발표문 일



1976년 여름 화랑대회 당시 사용되었던 민중불교 세미나 교재

부를 불태우기도 했다. 물론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 행동이었다. 전재성은 이 때 발표되었던 민중불교 이론에 대한 의견을 다시 종합했다. 그 원고를 소설가 황석영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듬해 1977년 10월호 <대화>잡지에 게재했다. 그런데 그 <대화>지는 당시 지학수 주교의 주장과 전재성의 '민중불교론'의 급진적

내용 때문에 강제 폐간되고 만다. <대화>지에 실린 '민중불교론'은 불교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민중불교운동의 이론적 거점이 확보됐다. 198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됐던 민중불교운동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로써 1976년 송광사 대불련 수련대회가 가지는 불교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 자식은 부모의 소유인가

인드라의 어머니 프리티비는 남편과 다른 신들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오랫동안 태내에 품고 있었다. 드야우스는 태어난 아이에게 강렬한 적의를 품은 채 날마다 아내를 주시했다. 하지만 영원히 태어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인드라가 태어나자 프리티비는 곧바로 아이를 버렸다. 아들이 태어난 것을 남편에게 숨기고 또 다른 신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도 가이아의 저주는 요즘 부모들이 자신의 뜻대로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게 하는 말과 매우 유사하다.

이미 신들의 왕이 된 기분에 한껏 도취된 크로노스는 가이아의 저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로노스가 만약 적극적으로 살면서 신들의 왕으로 군림했다면 가이아의 저주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속적인 사생활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에게 그것도 남신(男神)에게는 당연히 아내가 있었다. 어머니의 저주를 무시하던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가 임신 하자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했던 짓을 떠올리고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크로노스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만다. 바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먹여 버린 것이다. 레아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자 남편을 증오하게 됐다. 다시 임신을 한 레아는 더 이상 자



인드라

신화=김영수

식을 잃을 수 없다는 마음에 시어머니인 가이아를 찾아갔다. 남편의 손에 자식을 잃은 두 여인의 마음은 단번에 통했다. 또한 가이아는 드디어 자신이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가이아는 머느리 레아에게 한 가지 묘안을 가르쳐 주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영웅이 되는 과정점으로 돌아온 레아는 가이아의 조언에 따라 크로노스에게 그가 삼킨 아이들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크로노스는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뱃속에서 살아있다고 말했다. 물론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다. 남편의 입을 통해 직접 자식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레아는 한 줄기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 크로노스에게는 포대기에 쌓인 돌을 갖다오라고 숨겨서 주고 아이를 몰래 섬에 숨겼다. 이 아이가 바로 제우스였다. 제우스 역시 인드라처럼 아버지의 눈을 피해 어머니가 버린 아이였던 셈이다.

레아에게 속은 크로노스는 안심을 했지만 제우스는 그의 눈을 피해 무력무력 성장했다. 성년이 된 제우스는 형제들을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요정의 도움으로 구도가 나는 약초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을 크로노스에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 레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레아는 제우스로부터 받은 약초를 크로노스에게 먹였다. 드디어 가이아의 저주가 이루어질 순간이 온 것이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영화 '내 여자 친구의 결혼식'

### 노처녀·노총각 배려하는 한가위를

"오! 제발 이러지마요. 오늘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축하 파티를 엉망으로 망쳐놓고 왔던 말이예요. 어떤 차는 나를 뒤에서 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내 고물차는 시동이 안 걸려서 도망가는 녀석을 놔 놓고 보고 있었단 말이예요. 제발 브레이크 등 안 고친 것 가지고 딱 지 떼지마요."

"변명하지 마요. 이것은 오로지 당신이 자동차 브레이크 등을 고치지 않아서 바닥에 낫는 것은 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헬렌 탓이야. 내 차를 들이 박고 뺑소니 친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내가 브레이크 등을 고칠 돈이 없는 것도 다 뺑뺑이를 망쳐 한 불경기 탓이야."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경찰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이 꼬일대로 꼬였을 때 쉽게 남의 탓을 한다. 실제로 그것들이 나쁜 일이 일어나게끔 부채질할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나'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다. 영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의 주인공 에니는 제빵사다. 뉴욕 변화기에 야심차게 차렸던 빵집이 불경기로 망해버려 줄지어 빚더미에 앉은 실업자가 됐다. 인생에 잘되는 거라고는 하나 없다. 연애사업도 시월치 않고 새로 구한 직장도 시달지 않다. 가장 친한 소꿉친구와 신세 한탄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다. 그런 어느 날 친구가 프로포즈를

받고 에니에게 들러리를 부탁한다. 에니의 마음은 초콜릿처럼 달콤하기도 하지만 뒷맛은 씁사름하다.

에니와 릴리언은 어릴때부터 단짝이었다. 그 둘은 서로의 희로애락을 같이 해왔다. 저어도 '헬렌'이 나타나기 전에 헬렌은 릴리언의 예비 남편의 상사의 아내로 얼마 전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녀는 매우 부유하고 날씬하고 아름다웠다. 에니는 릴리언이 다른 세계에서 생긴 일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도 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영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자동차 사고가 난 길에서 경찰관에게 하소연 하는 장면이다. 에니의 속마음은 이렇다. '내가 이 시간 이 길 바닥에 낫는 것은 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헬렌 탓이야. 내 차를 들이 박고 뺑소니 친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내가 브레이크 등을 고칠 돈이 없는 것도 다 뺑뺑이를 망쳐 한 불경기 탓이야.'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경찰이 일침을 가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수행을 권한다. 주변의 상황에 내 마음이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지 남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유난히도 경쟁이 심한 한국사회. 산업화과정에서 그렸고 교육현실이 그렇다. 지금은 세계경제 20권의 대국이 됐노라고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살률 1위의 국가이다.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머지않았다.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 청년실업자, 장수생, 노처녀·노총각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우리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챙기는 한 방법이다.



영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예비신부 릴리가 값비싼 들러리 드레스를 보여 OK를 외치고 있는 중에 든웃는 에니는 면상을 바라보고 있다.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해포)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함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 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해포오일비누  
1개 10,000원

### ■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짚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돌리면서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민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뚝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